

볼턴 “발사 여부 추측 알겠지만 北 예의주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논란 확산 피하며 北에 경고 “트럼프, 김정은 만날 준비... 빅딜문서는 실무선서 작성”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동향 등과 관련해 논란의 확산을 피하면서 “눈 한번 깜박임 없이 보고 있다”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 ABC방송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곧 위성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특정 상업 위성사진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면서 “그와 관련해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위성을 발사하면 협상이 무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역시 추측하지 않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에 자신 있어 한다”

고 말했다.

이런 그의 발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동창리발(發) 논란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 일단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이 될 하는지 정확히 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눈 한번 깜박임 없이 보고 있다(We see it unblinkingly). 그들의 역량에 대해 어떤 오해도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정보자산을 동원해 동창리 등의 동향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은 만약 북한이 위성이나

ICBM 발사 등을 감행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꽤(pretty) 실망할 것”이라고 고 말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당시 미국이 동창리 등의 동향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차 북미정상회담에 열려있다고 말했다.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가야 할지 모르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돌아가 그들의 입장에 대해 재고한 뒤 다시 돌아와 ‘빅딜’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빅딜 수용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북측의 비핵화 결

단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넨다는 이른바 ‘빅딜 문서’ 속 제안을 누가 한 것이냐는 질문에 “실무선에서 작성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승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에 처음부터 생화학 무기 제거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는 주한미군 때문에 중요하고 한국과 일본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핵-미사일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타결식 빅딜 접근을 북한에 거듭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볼턴 보좌관은 대북 경제제재를 언급하며 “지렛대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 쪽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옳은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72〉 선종

선종(宣宗, 810-859)은 당의 제16대 황제로 이름은 이침이다. 현종의 13황자로 목종의 동생이고 문종, 무종의 숙부다. 현종 이후 가장 뛰어난 군주로 평가된다.

현종과 귀비 정씨 사이에서 태어나 광왕으로 봉작되었다. 모친은 진해절도사 이기의 시첩 출신이다. 황족들의 거주지 십육택(十六宅)에서 어리석은 체하며 살았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남다른 면이 있어서 이복형 목종이 어느 날 찾아와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영물로 격정할 것이 없다”며 선물을 하사했다고 한다. 846년 무종 임종 직전 37세에 황태상으로 추대되어 즉위했다. 즉위는 환관 마원지의 후원으로 가능했다. 무종은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임종을 맞이하자 마원지가 아들이 여러

지 않았다. 그러나 환관을 제거하려다 실패해 세력만 키워준 감로지변을 교섭삼아 과격환관 제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만족과의 갈등도 완화되었다. 간쑤성 동황 주변의 사주를 다스리던 장의주가 당에 귀순하였다. 대종 시기 토번에 점령당한 이후 중앙의 힘이 미치지 못했는데 850년 토번의 장수를 쫓아내고 귀의한 것이다. 선종은 사주를 귀의군으로 칭하였다. 장의주를 귀의군절도사에 임명하고 검교이부상서, 금요대장군 직위를 하사했다.

이만족 관가의 기강을 다잡았다. 정책을 자세히 살피고 상소문을 꼼꼼히 읽었다. 상주문 글자 한자가 틀린 것까지 따질 정도로 치밀했다. 재상 영호도는 “나는 황제의 성을 많이 받았지만 연영전에서 국사를 보고할 때는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고 긴장했다”고

현종 이후 가장 뛰어난 군주

다는 이유로 그를 황제로 옹립했다.

재상 이덕유를 강릉윤, 형남절도관 참치치사로 임명해 내쳤다. 무종 재위 기간 권력을 장악한 이덕유 일파의 몰락이다. 진사 출신의 백민중을 재상으로 발탁했다. 우승유 일파가 중앙으로 돌아왔지만 과거처럼 발호하지는 못했다. 폐불령(廢佛令)을 취소했다. 도사 조귀진은 백성들에게 맞아죽었다. 연호를 대중(大中)으로 바꾸었다. 즉위 초 태황태후 께씨의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 께씨는 께씨의 장군의 손녀로 대종의 장녀 승평공주의 딸이었다. 목종의 생모다. 선종은 그녀가 부친 현종의 석연치 않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했다. 선종의 즉위로 그녀는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불안감에 빠졌다. 결국 난간에서 떨어져 자살을 기도했다. 목숨은 부지했지만 선종은 할머니를 죽임으로 내린 불효자가 될 뻔했다. 그날 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황태후 격에 미치지 못하는 장례가 치러졌다. 남편 현종의 무덤에 합장되기도 못했다.

환관 세력을 억제했다. 즉위에 공로가 큰 환관 마원지가 재상 마식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황제가 하사한 옥대를 선물로 주었다. 어느날 마식이 옥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음날 재상직에서 파직해 상주자사로 좌천시켰다. 이 후 마원지는 절대 선을 넘는 행동을 하

말할 정도였다.

자사(刺史)의 인사에 관심을 기울였다.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자사가 행정의 요체임을 인식하고 적임자를 선발하는데 공을 들였다. 관리의 이름을 적은 화명책을 만들어 늘 참고했다. 임명시 직접 만나 후보의 자질, 품성, 역량을 평가했다. 시에 뛰어난 사헌원외랑 이원을 재상 영호도가 항주자사로 추천했다. 그러나 황제는 임명을 주저했다. 그의 시에 “하루종일 오로지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다”는 구절을 보고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상이나 주요 대신을 임명할 때는 깨끗이 손을 씻고 황을 태워 경건히 묵도한 후에 확인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한다.

친인척에게 엄정했다. 외삼촌 정광의 소유 장원에 소속된 하급 관리가 위세를 믿고 세금 납부를 거절하자 경조윤 위오는 체포해 사형판결을 내렸다. 선종은 사형만은 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황제는 “황제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법 집행을 어지럽혔으니 참 부끄럽다”고 자책했다. 위오는 장형으로 벌을 낮춰 황제의 체면을 세워주었다. 말년에 현종처럼 금단에 빠졌다. 도사 유현정을 신임해 스승으로 모셨다. 859년 한달동안 조회를 한 번도 열지 못할 정도로 부작용이 심해졌다. 8월 50세로 세상을 떠났다.



10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동부 에티오피아의 비소프루 인근 에티오피아항공 보잉 737 맥스 여객기 추락 현장에서 구조요원들이 희생자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35개 국적 157명 사망

캐나다 18명·유엔직원 19명 “충격과 슬픔” 지구촌 애도 물결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10일(현지시간) 여객기 추락 사고로 35개 국적 15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자 세계 각국의 애도가 잇따르고 있다.

희생자의 국적을 보면 케냐가 32명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 18명, 에티오피아 9명, 중국·이탈리아·미국 각 8명, 프랑스·영국 각 7명, 이집트 6명, 독일 5명 등으로 집계

됐다. 한국인 탑승객은 없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사고 발생 후 아비 아흐메드 에티오피아 총리가 가장 먼저 트위터를 통해 “정부와 에티오피아 국민을 대신해 사고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

취스텝 트위터도 캐나다 총리는 공식 성명을 통해 “캐나다 국민 18명을 포함해 157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분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또한 트위터에 통해 “유엔 직원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엔사무국 안전보안국(UNDSS)에 따르면 19명의 유엔 직원이 사망했다고 유엔 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이날 아침 승객과 승무원 등 157명을 태우고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떠나 케냐 수도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잉 여객기가 이륙 6분 만에 추락하면서 탑승자가 모두 숨졌다. /연합뉴스

말레이시아 검찰 김정남 살해 인니 여성 기소취하후 전격 석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인 여성이 말레이시아 검찰이 기소를 취하하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11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담당해 온 이스칸다르 아흐맛 검사는 인도네시아 국적자 시티 아이샤(27·여)에 대한 살인혐의 기소를 취하했다.

시티의 변호를 맡아 온 구이 순 생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된 만큼 즉각 석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사법당 고등법원은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이날 오전 시티를 석방했다.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도 김정남을 살해한 것은 사실인 만큼 과실치사 등 다른 혐의로 다시 기소될 것인 전망이 틀린 셈이다.

시티는 법원 앞에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타면서 기자들에게 “놀랐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루스디 카라나 현지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티는 현지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이동했다가 곧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검찰과 재판부는 기소취하와 석방 결정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시티는 베트남 국적 피고인 도안 티 흐영(31·여)과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금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훔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 210평(실평 147평, 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사무실등등)
 - 감정/시세 -14억
 - 금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